

## 2021년도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분과위원회 개선 관련 알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도 어느덧 3월에 이르렀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의 연속이지만 봄이 오면서 해가 길어지는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함을 자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지난해에는 15대 집행부 기획정책 파트 주관으로 분과위원회를 9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조정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기존 분과위원회(총 9개 분과)
  - 매장문화재, 석조문화재, 목조문화재, 벽화·회화·지류문화재, 세계유산, 근대문화재, 문화재 분석, 문화재 환경, 보존처리 및 기술
- 개선 분과위원회(총 5개 분과)
  - 문화유산분석 · 환경, 무기질문화유산, 유기질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디지털문화유산

성격이 유사한 분과는 통합하였고, 학회 분과 활성화를 위해 근·현대 문화유산보존 및 디지털문화유산 보존 분과를 신설하여 미래 보존과학을 준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분과 수를 줄여 회원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남의 장이 되는 학술대회가 기관 · 학교 · 산업체 간의 소통 및 공감대가 활성화되어 활기찬 학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15대 평위원의 분과를 편성하였고, 2월에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사진과 평위원의 추천을 받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공유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올 해 춘계학술대회부터 조정된 분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소 회원님들의 혼란은 있겠지만 집행부와 평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학술대회가 되리라 판단되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후반기에는 분과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숍은 문화재보존과학 전공학생, 보존과학분야 종사자, 교수 등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여 분과별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내용, 현장적용, 연구 동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해 분과별 활동이 학회의 화합과 소통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미래 보존과학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경험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부부터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희망 가득한 봄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